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부문에서는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부문에서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부문에서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부문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부문에서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 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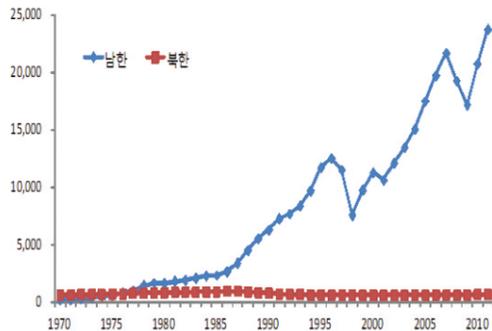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 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요

1945년 분단 이후 67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사회상이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1975년 이후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벌어져,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당 GDP의 경우 한국은 2만 3,749달러로 세계 3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720달러로 세계 158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달라졌는데, 남북은 지난 1991년에 남북한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158개국이나, 한국 단독 수교국은 31개국(로마 교황청 포함)인 반면, 북한 단독 수교국은 쿠바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의 경우, 한국은 99,720 km²로 세계 109위이며, 북한은 120,538 km²로 세계 9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경우에는 한국은 4,940만 명으로 세계 25위이며, 북한 2,460만 명으로 세계 49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1인당 GDP 추이〉

(단위 : %)



자료 : 북한 1인당 GDP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남북한 위상 비교(2011년 기준)〉

(단위 : %)

	국토 면적 (km ²)	인구 (백만 명)	1인당 GDP (달러)
한 국	99,720 (109위)	49.4 (25위)	23,749 (31위)
북 한	120,538 (99위)	24.7 (49위)	720 (158위)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 201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주 : 국토면적은 CIA, 인구는 UN, 1인당 GDP 순위는 IMF.

남북한은 각각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을 통해 경제 성장의 신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위상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부진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도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후 별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간다고 가정하고 통일한국의 각 분야별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2050년까지 통일한국의 각 분야별 미래상은 각 부문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와 인구밀도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인구 변화 추이와 생산가능 인구, 2050년까지 국토가 통합된 통일 한국의 인구밀도(명/km²)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명목 GDP와 1인당 GDP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하자원 부문에서는 남북한 통합 이후 한국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광물자원 중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여 수입 대체 효과 추정하고자 한다. 재정 부문에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 이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점차 줄여나간다고 가정(1989년 GDP 대비 2.8% 국방비 지출 → 2003년 GDP 대비 1.4%)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연간 0.1%p씩 줄여나간다고 가정하고, 2027년부터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국방비 절감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유네스코등재 유산을 기준으로 문화재 강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분석하고자 한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남북한 단일팀 출전을 가정하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력 부문에서는 GDP, 인구, 국방비 비중 등을 고려한 국력지수를 통해 통일한국의 위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

구 분	출 처
인구와 인구밀도	- 인구 변화 추이 - 생산가능인구 - 1인당 국토면적 UN
경제 성장	- 명목 GDP 추이 - 1인당 GDP Goldman Sachs
지하자원	-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광물자원공사
재 정	- 군사비 절감 효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문 화	- 문화재 문화재청
스 포 츠	- 올림픽 순위 대한체육회
국 력	- 국력지수 Pardee Center in University of Denver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인구와 인구 밀도

2050년 통일한국의 총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이 가능하다.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030만 명으로 33위를 기록하나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4,710만 명으로 세계 4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인구는 2030년 2,620만 명으로 60위를 기록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며 2050년에는 2,640만 명으로 세계 65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인구〉

순위	2015	2020	2030	2040	2050
1	중국 (1,370)	중국 (1,388)	인도 (1,523)	인도 (1,627)	인도 (1,692)
2	인도 (1,308)	인도 (1,387)	중국 (1,393)	중국 (1,361)	중국 (1,296)
3	미국 (324)	미국 (337)	미국 (362)	미국 (383)	미국 (403)
4	인도네시아 (252)	인도네시아 (263)	인도네시아 (280)	나이지리아 (320)	나이지리아 (390)
5	브라질 (203)	브라질 (210)	나이지리아 (258)	인도네시아 (290)	인도네시아 (293)
	20위 통일한국(74.0)	20위 통일한국(75.2)	21위 통일한국(76.5)	24위 통일한국(75.8)	26위 통일한국(73.5)
	28위 한국(49.1)	30위 한국(49.8)	33위 한국(50.3)	35위 한국(49.4)	41위 한국(47.1)
	50위 북한(24.9)	51위 북한(25.4)	60위 북한(26.2)	62위 북한(26.4)	65위 북한(26.4)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참고

주 : 순위는 총 197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한편, 통일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50년 58.0%로 통일 이전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70.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50년 58.0%로 낮아질 전망이다. 0~14세 유소년 인구

| 논 단 |

는 2030년 16.2%, 2050년 14.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대 초반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대 초반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¹⁾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 62.5%, 2050년 54.0%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2050년 13.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천 명)

〈통일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천 명)

구 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구 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15	7,139 (14.5%)	35,512 (72.3%)	6,469 (13.2%)	2015	12,350 (16.7%)	52,656 (71.2%)	8,968 (12.1%)
2020	7,158 (14.4%)	34,833 (69.9%)	7,818 (15.7%)	2020	12,297 (16.4%)	52,692 (70.1%)	10,175 (13.5%)
2030	7,117 (14.1%)	31,471 (62.5%)	11,747 (23.3%)	2030	12,364 (16.2%)	49,309 (64.5%)	14,842 (19.4%)
2040	6,629 (13.4%)	28,113 (55.5%)	14,611 (29.6%)	2040	11,466 (15.1%)	45,317 (59.8%)	19,015 (25.1%)
2050	6,193 (13.2%)	25,424 (54.0%)	15,433 (32.8%)	2050	10,809 (14.7%)	42,650 (58.0%)	19,973 (27.2%)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남북한 통합시 2050년에 남북한 인구 밀도는 1km² 당 334명으로 세계에서 39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1km² 당 484명으로 1인당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14번째로 한국은 북한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아 인구 밀도가 높다. 반면, 북한의 인구 밀도는 1km² 당 202명으로 1인당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51번째로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1)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

〈국토 면적〉

(단위 : km²)

구 분	한 국	북 한	남북한 통합
국토 면적 (순위)	99,720 (109위)	120,538 (99위)	220,258 (85위)

자료: CIA, The Factbook, 2012.

주: 순위는 총 222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2015년 남북한 통합시 인구밀도는 1km² 당 336명으로 세계 31위, 2030년 인구 밀도는 1km² 당 348명으로 세계 34위, 2050년 인구 밀도는 1km² 당 334명으로 세계 39위로 점차 인구 밀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한국지역의 인구 밀도는 2011년 495명/km²에서 2050년 473명/km²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인구 밀도〉

(단위 : 명/km²)

2015	2020	2030	2040	2050
336 통일한국(31위)	342 통일한국(33위)	348 통일한국(34위)	344 통일한국(36위)	334 통일한국(39위)
493 한국(14위)	500 한국(16위)	506 한국(16위)	496 한국(17위)	473 한국(23위)
206 북한(54위)	210 북한(55위)	217 북한(61위)	219 북한(62위)	219 북한(62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참고.

주: 순위는 총 197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경제 성장

통일한국의 명목 GDP는 2050년에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GDP는 2015년 1조 6,430억 달러, 2030년 3조 2,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2040년부터는 영국, 독일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명목 GDP〉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통일한국	1,643	2,077	3,280	4,956	6,056
한 국	1,596	1,964	2,645	3,448	4,073
북 한	47	113	635	1,508	1,982

자료: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주: 통일 경제의 장기 전망은 크게 전환 단계(2013~2027), 공고화 단계(2028~2037), 성숙 단계(2038~2050)의 3단계로 구성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50년에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8만 6,000 달러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22,000달러, 2030년 43,000달러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8만 6,000 달러의 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의 1인당 GDP〉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통일한국	22,000	28,000	43,000	66,000	86,000
한국	32,000	40,000	54,000	74,000	96,000
북한	2,000	4,000	23,000	53,000	70,000

자료 :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지하자원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유용광물 200여종)되어 있어, 한국 내수의 1/2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3조 9,03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24.3배에 달한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 흑연 매장량은 세계 4위이며, 금 매장량 세계 6위, 아연 매장량은 세계 7위,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9위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 매장량이 풍부하고, 한국의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북한 개발 유망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산, 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다.²⁾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유금속'³⁾ 중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등 4종과 코발트, 크롬 등이 매장되어 있다. 한국 내수의 1/2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동과 몰리브덴을 제외한 북한의 개발 유망 광종은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때 가용연한이 최소 28년 이상이다.

2)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 실태", 『북한 광물자원산업의 진출 전략과 전망 포럼』,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4. 15, p. 7.
 3) 10대 중점 확보 희유 금속은 리튬, 크롬,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 텅스텐, 인듐, 희토류, 마그네슘, 티타늄을 말함

〈남북한 주요 광종의 매장량 및 잠재가치〉

(단위 : 10억 달러)

광종	기준품위	단위	매장량(톤)		잠재가치 (10억 달러)		한국의 수입의존도 (%)
			북한	한국	북한	한국	
금	금속기준	톤	2,000	42.7	85.7	1.8	96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	557.9	18.5	0.3	100
철	Fe 50%	억톤	50	0.4	877.5	0.7	99
동	금속기준	천톤	2,900	51.0	7.3	0.1	100
몰리브덴	MoS2 90%	천톤	54	24.2	1.1	0.5	96
텅스텐	WO3 65%	천톤	246.0	128.6	0.04	0.02	0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	-	2,404.8	-	100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	121.6	3.0	0.2	100
인회석	각급	억톤	1.5	-	27.0	-	100
무연탄	각급	억톤	45	13.6	454.5	137.4	65
은	금속기준	톤	5,000	1,349.8	5.0	1.3	93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	372.0	17.7	0.9	99
망간	Mn 40%	천톤	300	176.4	0.2	0.09	100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	-	0.007	-	100
고령토	각급	천톤	2,000	110,773	0.3	14.9	11
활석	각급	천톤	700	11,131	0.1	2.3	88
형석	각급	천톤	500	477	0.2	0.2	100
중정석	각급	천톤	2,100	842.1	0.4	0.2	100
계					3,903.3	160.9	

자료 : 1)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2009.

2)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물 수급 현황, 2011』, 2012. 6

주 : 잠재가치는 2011년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계산.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내수 규모는 231.6억 달러에 달하지만, 자급률이 1%에 불과한데, 북한의 철 보유 규모는 8,775억 달러에 달해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15.8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철광석의 품질이 다소 낮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철광석 국제가격의 폭등 등 가격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 개발 유망 광종의 한국 내수 규모와 가용 연한〉

광 종	한 국			북 한	내수의 50% 복축 조달시 가용 연한
	보유규모 (억 달러)	내수규모 (억 달러)	자급률 (%)	보유규모 (억 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아연	3	13.1	0	185	28년
철	7	231.6	1	8,775	76년
동	1	42.5	0	73	3년
몰리브덴	5	4.0	4	11	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총계	36	307.8		34,249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물 수급 현황, 2011』, 2012. 6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재정 절감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2010년 현재 GDP 대비 2.7% 국방비 지출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점차 줄여나가서 2027년 이후 GDP 대비 1.4%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연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통일 이후 연간 0.1%p씩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9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8%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3년 GDP 대비 1.4%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후 대체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를 추정하였다.⁴⁾

〈국방비 절감 효과〉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현행 국방비 유지 (GDP 대비 2.9%)	47.6	60.2	95.1	143.7	175.6
국방비 감소 (연간 GDP 대비 지출 비중 0.1%씩 감소, 2027년 이후 GDP 대비 1.4% 지출)	42.7	43.6	45.9	69.4	84.8
국방비 절감(A-B)	4.9	16.6	49.2	74.3	90.8
누적 감축액	9.2	66.9	419.2	1,051.7	1,886.2

4) 한국과 독일의 국방비 비중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ipri.org>) 참조

문 화

남북한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통일시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총 3,974건, 북한 총 2,541건 등 남북한 총 6,515건의 풍부한 문화 유산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 현황〉

종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자료	등록 문화재	총계
건 수	315	1,701	509	74	519	121	266	469	3,974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11』.

〈북한의 문화재 현황〉

종별	국보유적	국가지정 보존급 유적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천연기념물	총계
건 수	187	1,723	75	111	445	2,541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9』.

2011년 말 현재 유네스코 등재 유산 총 974건 가운데 한국의 등재 유산은 10건으로 21위 수준이다. 기등록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유산 1건과 등재 추진 중인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유적지구 1건 등 2건을 포함하면 12건으로 19위 수준이다.

〈각국 유네스코 등재 건수〉

순위	국가	등재 건수
1	이탈리아	47
2	스페인	43
3	중국	41
4	프랑스	37
5	독일	36
19	통일한국	12
21	한국	10

〈남북한 유네스코 등재 유산 목록〉

	종 류	등재연도	비고
한국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문화
	조선왕릉	2009	문화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	2007	자연
	경주 역사 지구	2000	문화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2000	문화
	수원 화성	1997	문화
	창덕궁	1997	문화
	석굴암과 불국사	1995	문화
	종묘	1995	문화
	해인사 장경판전	1995	문화
북한	고구려 고분군	2004	문화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논 단 |

향후 남북 공동 발굴이 가속화될 경우 순위는 더욱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을 추진하면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 포 츠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남북한 올림픽 순위를 볼 때, 남북단일팀 구성 시 1992년 6위, 2008년 6위 등의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일시 스포츠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하계올림픽 순위〉

구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개최지	바르셀로나	아틀란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통일한국	5위	7위	12위	9위	6위	5위
	금 16 은 5 동 17	금 9 은 16 동 7	금 8 은 11 동 13	금 9 은 16 동 10	금 15 은 11 동 11	금 17 은 8 동 9
한 국	7위	10위	12위	9위	7위	5위
	금 12 은 5 동 12	금 7 은 15 동 5	금 8 은 10 동 10	금 9 은 12 동 9	금 13 은 10 동 8	금 13 은 8 동 7
북 한	16위	33위	60위	57위	33위	20위
	금 4 은 0 동 5	금 2 은 1 동 2	금 0 은 1 동 3	금 0 은 4 동 1	금 2 은 1 동 3	금 4 은 0 동 2

자료 :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홈페이지

통일 한국의 국력

통일한국의 국력지수는 2050년 1.71로 10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국력지수는 각국이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로, 세계 총 국력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의 국력지수는 2020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14위의 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국력지수는 2015년 64위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71위의 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력 지수〉

순 위	2015	2020	2030	2040	2050
1	미국 (22.3)	미국 (20.59)	미국 (17.75)	중국 (18.5)	중국 (19.5)
2	중국 (14.1)	중국 (15.76)	중국 (17.11)	미국 (15.4)	인도 (14.8)
3	인도 (7.8)	인도 (8.45)	인도 (10.25)	인도 (12.3)	미국 (13.8)
4	일본 (4.5)	일본 (4.04)	일본 (3.41)	일본 (2.70)	브라질 (2.5)
5	독일 (3.0)	독일 (2.74)	브라질 (2.62)	브라질 (2.66)	일본 (2.3)
	10위 통일한국(1.94)	10위 통일한국(1.60)	12위 통일한국(1.61)	12위 통일한국(1.55)	10위 통일한국(1.71)
	11위 한국(1.9)	10위 한국(1.84)	11위 한국(1.70)	13위 한국(1.44)	14위 한국(1.21)
	64위 북한(0.19)	65위 북한(0.19)	68위 북한(0.19)	68위 북한(0.18)	71위 북한(0.17)

자료 : Pardee Center in University of Denver, International Future's Model 참고.

주 : 1) 국력지수는 GDP 비중 35.48, 인구 비중 25.81, 국방비 비중 29.03, 기타 9.68 등으로 구성.

2) 통일한국의 국력지수는 GDP와 국방비 비중을 고려하여 재계산

시사점과 과제

통일 한국은 7,500만 명 이상의 내수 시장과 거대 인구·지하자원 등의 생산 요소 확보 등을 통해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이 신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과 신 도약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며, 통일한국의 실현을 통해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 자원과 한국의 고도 성장 노하우와 인프라가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광물자원 자급률 등을 해소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도 만성적인 경제3난으로 지적되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실현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지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전 부문에서 통일한국의 위상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이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하다. **統**